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한가위,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다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서신서에서 소선지서로 바뀝니다.
- 연휴 후에 방모임과 교회생활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실행위원회 임시회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다운 전도사 (생일 감사)
장미숙 권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38 호

2024년 9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특별한 초대장

얼마전 어린이학교 친구들과 평창으로 여행을 하던 중, 평창올림픽 기념관에 들려 '올림픽 휴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 고대 올림픽 당시 올림픽에 참가한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는 경기가 열리는동안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올림픽 휴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제72차 UN 총회에서는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라는 제목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되니 올 여름에 파리 하계올림픽기간동안 끊이지 않았던 여러 국가들의 전쟁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한 개인의 약속, 한 단체의 약속도 아닌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약속이 한낱 보잘 것 없는 떠도는 소리와 같으며 인간의 약속은 자신의 이익, 국가의 이념과 종교 앞에서 보잘것 없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얀마에는 수십년동안 정부군과 반군사이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수십년째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5일, 이날도 미얀마 로힝야족 1000여명은 탄압을 피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방글라데시로 강을 건너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미얀마 내 반군단체인 아라카군(AA)이 4대의 폭탄을 실은 드론을 이들 위에 투여하였고 이 일로 강을 건너던 약 2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도, 2017년 8월에도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필사의 탈출을 했던 로힝야족은 현재 100만여명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필사의 탈출을 했던 가족들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고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는 몰려오는 로힝야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국경경계를 강화하고 넘어오는 이들을 체포구금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간신히 국경수비대를 피해 친척들의 집으로 피신한 로힝야 난민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민간단체나 국가의 지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넘어온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의 가난과 질병을 견딜 수 없어 또 다시 다른 국가를 향해 무작정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와 실종되거나 죽어 가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여러 단체들도,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빼앗으며 평화롭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함께 누리는 평화는 어렵고 함께 한 약속은 쉽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세상적으로 착한 것, 양보하며 사는 것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며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체학교에서는 10월 9일 선교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바자회를 통해서 앞에서 소개한 로힝야족을 비롯하여 국가나 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가난과 분쟁지역의 최전선에 들어가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그들의 필요를 돕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전하고 있는 '개척자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잠깐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세상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초대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
<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임재,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기도 : 김영동 집사

성경 : 예레미야서 52장

제목 :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의 소망

1. 내용: 유다 멸망에 대한 마지막 기사. (What)

<문단구분>

1~11절 시드기야 왕의 최후

12~26절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다

27~30절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31~34절 여호야긴의 노후

2. 의미: 철저한 심판과 회복의 소망. (Why)

- 1) 왕권의 단절과 리더십의 붕괴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 2) 성전의 철저한 파괴는 여호와 신앙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 3) 사람들이 잡혀간 것은 나라의 재건이 불가능하다.
- 4) 후대를 받는 여호야긴 왕의 기사는 징계가 끝난 후에 회복을 꿈꾸게 한다.

3. 적용: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How)

- 1)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 2)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 3)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추석 명절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불리며,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민족 대명절이다. 한가위 명절에는 일가 친척이 고향에서 차례 지내고 성묘가는 전통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설렘을 가득 안고 고향으로 향한다. 우리도 예외 없이 설렘으로 고향을 방문하곤 했었다. 그 시절 고향 방문은 쉽지 않았다. 한꺼번에 몰린 고향 방문으로 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되었고, 21시간 걸려 고향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부모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집 추석 명절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추석 한 주 전에 형제들 모두 함께 모여 부모님이 계시는 산소에 가서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시간으로 추석 명절을 대신한다. 팔 남매인 우리 집은 다 모이게 되면 50여 명이 된다. 다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게 되었고, 추석 명절 당일은 자연스럽게 각 가정별로 보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복잡하고 힘든 명절 고향 방문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실 때 함께 모여 가족애를 느끼고, 정담을 나누며, 명절을 보내던 그때가 그리워진다.

이번 추석에는 처가 부모님이 계시는 김해에 가서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처가에서 보내는 명절은 아직은 어색하지만, 처가 식구들과 보내는 명절은 색다른 면이 있어 좋았다. 우리 본가는 명절을 조용하게 보내는 편이었다. 말을 많이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집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듯하다. 반면 우리 처가 식구들은 많이 다르다. 장인어른, 숙부님을 중심으로 온 식구들이 한데 모여 시끌벅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재밌게 이야기꽃을 피워가며 추석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고 정겨웠다.

올 추석 명절은 오고 가는 차 안에서 평소 나누지 못했던 각자 생각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가족애를 가득 느꼈던 것 또한 달라진 추석 명절 분위기 중의 하나였다.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싹사랑방 윤호중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베드로전서 1:3-4 인도자
2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편 34:18,20 인도자
다함께
42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가복음 9:30-37 설교자
예수 닮기 위해 비움사랑방
“섬김을 가르치시다”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5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연갑 이운순 / 봉헌위원 : 최신혜 / 꽃꽂이 : 김영하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은혜의 하나님

공동기도문

저희를 자녀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섬김을 가르치시다

제자들의 당황.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간 후에 아래에 남아 있던 아홉 제자는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길에서의 논쟁.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심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에게 충실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모습을 보시고서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영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숲으로 밤을 주우러 다녀왔어요. 추석이 지났지만 덥고 습해서 땀이 났어요. 오가는 길에 강아지풀이랑 여러 버섯들이랑 벌레들을 만났어요. 모기기피제를 뿌렸지만 모기들이 따라다녔어요. 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신나게 주웠지만 땀이랑 모기 때문에 좀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도 제법 많이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식구들과 함께 먹었어요.

종이비행기를 열심히 날리고 있어요. 더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드느라 책을 보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서로의 비행기를 구분하느라 색칠도 하고 그럴싸한 이름도 붙여요.

체육시간에는 탕탕볼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혼자서 튕기거나 던져서 받는 연습을 했고 이번 주에는 서로 던지고 받는 연습을 했어요.

하온이는 기침이 심해서 지음이는 입원중이어서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어요. 추석연휴에 친구들이 지음이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고 학교에 온 이든이, 룩이, 아름이는 하온이랑 지음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이번 주에는 긴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단 이틀 목요일 금요일에만 등교를 했는데 여행이 길어진 친구와 먼 길을 오가느라 몸에 탈이 난 친구들이 결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기침이나 콧물 정도로 그친 친구들은 학교에 나오기도 했지만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날은 여전히 습하고 더워도 밤은 익어가고 있어서 수업시간에 뒷산으로 밤을 주우러 갔습니다.

학교는 시골이지만 친구들의 주거지는 도시라 좀 더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

니다. 밤이 알알이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송이째 알이 그대로 박혀있는 밤송이를 발견한 하늘이가

“선생님, 누가 밤을 벌려만 놓고 안 가져갔어요~~” 귀엽기도 했지만 이럴수가... 두 손 가득 주워서 돌아왔지만 모기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저기 약을 발라도 굼느라 손이 바뻐답니다. 전선생님이 부모님 간호차 부산에 가서서 나머지 교사들은 서로 쳐다보며 얘기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이틀을 마무리 했습니다. 토요일은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일부 교사는 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가 기대되는건 왜일까요~~.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추석 연휴를 보내고 수요일 저녁에 등교한 멋쟁이들은 얼굴이 환해보였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추석 명절을 보낸 멋쟁이들은 다소 후유증을 겪기도 했지만, 금세 축구와 탁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로운 공동심화학습 주제로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핫플레이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테마여행까지 연결되어 준비하는 만큼, 멋쟁이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열린수업 시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탁구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년별로 단식과 복식을 오가며 연습하고, 다른 학년과 대결하며 실력을 시험하고 쌓는 것을 보니 4학년이 준비하는 탁구대회가 매우 기대됩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미국 생활의 토대가 되어주셨던 Mr/Mrs. kim 가정이 방문하셨습니다.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3, 4학년과 만남을 이어가시고, 영어 과제를 체크해주시고, 간식도 가져다주시는 등 짧지만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들을 함께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유럽공동체탐방 여행 사진에 나타난 5학년의 미소가 한껏 빛나고 있어서 잘 다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머무는 동유럽에서도 좋은 경험들을 이어가도록, 분주한 일정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내 생일과 추석

내 생일은 음력으로 추석 전 날이다.

어릴 때부터 명절 전이기도 하고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라 미역국만 가끔 얻어먹었던 것 같다. 조금 자랐을 때부터는 내 생일에 축하를 받은 기억은 별로 없고 엄마를 도와 일만 했던 것 같다. 전 부치고, 송편 빚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고, 생일날 일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고 아주 작은 선물이 라도 안겨지는 것도 아니니, 양력으로 지냈다면 좋았을 것을....

결혼을 했어도 내 생일은 변함없이 일하는 날로 당첨~~! 결혼하자 마자 형님네가 제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명절 일은 오로지 내 몫이었고 형님네는 손님!!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정성껏, 즐겁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남편도 잘 안 챙겨 주는 생일을 시어머니께서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챙겨 주셨다는 것이다. 올해도 아무도 모르게 봉투를 내미시는 그 마음이 감사하고 소중하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니 엄마가 생일에 고생한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 좋았는지 사촌들이랑 의논해서 음식을 만들지 말고 외식을 하자고 한다. 한 6~7년 전부터 명절음식에서 해방되니 메뉴 정하고 장보고, 딸래미의 도움을 받으며 바쁘게 보냈던 생일날이 이제는 너무 편하고 애들에게도 참 고맙다. 올해도 음식 만드는 부담이 없이 만난 거 먹고 축하 받으며 즐겁게 쉬고 주머니도 조금 두둑해지니, 아~~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365, 421

성 경 : 디모데전서 6 : 11-16

말 씬 : 믿음의 선한 싸움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기후 위기와 환경운동 >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각 나라들이 더욱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이상기후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시고,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라파 공동체>

라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섬기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해

1) 추석명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2) 공동체 지체들과 가족들 중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추석명절로 인해 공동식구들도 고향을 방문하여 먼 곳을 오고갔습니다. 공동체를 비울 수 없기에 자원하여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지킨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섬김입니다.

가을 장마이후에 진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곧 단풍으로 물들 공동체 풍경이 기대가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